



자 조 금 소 식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선거 10월 17일 실시 제3차 관리위원회, 2기 대의원선거 세부대책 논의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가 오는 10월 17일에 실시된다.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지난 5월 11일 제주양돈농협 회의실에서 제3차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에 개최되는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에 대한 세부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관리위는 대의원 선거일 지정(안)과 농림부 가축사육두수 조사결과에 따른 선거인 명부작성 등 내용을 포함한 대의원 선거권자 확정(안), 대의원수 배분(안), 대의원 선거방법 및 절차(안)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선거는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우편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선거인 명부는 선출구별로 명부를 비치·열람하게 하여 누락 또는 오기시 수정 가능하도록 했다. 투표소는 지역축협(양돈조합)과 양돈협회 지부에서 자율 결정하여 설치하게 된다. 아울러 1기 대의원 선거가 공동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만큼 2기 대의원 선거의 모든 권한은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수행하며 공동준비위원장의 역할을 관리위원장이 수행기로 했다.

한편 관리위원회는 내년 촉발금 예산을 74억원으로 신청한 만큼 농가 거출금을 현행 마리당 400원에서 6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양돈자조금 납입률 96% 돌파!

경영난 불구 도축장 100% 참여 '상생' 공감대 뒷받침

2006년도 양돈자조금 미납금이 추가로 납부되면서 평균납입률이 96%를 돌파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현재 '06년 7~10월분 양돈자조금 납입률이

9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1~12월분의 경우 95%를 넘어서고 여기에 추가납부가 예상되어 최종 집계시 96%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관리위는 양돈농가와 도축장 관계자들의 양돈자조금에 대한 이해가 보다 높아지는 한편, 축산물 위생처리협회에 거출홍보비 지급으로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강원도 횡성 소재 도축장의 경우 수납한 자조금을 유용하여 지난해 8월 형사고발한 결과 2004년~2006년까지 수납한 1,500여만원의 자조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자조금거출에 100% 협조하겠다고 약속,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이로써 전국 도축장이 양돈자조금 거출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납입률이 저조하던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양돈자조금 대의원협의회 등을 개최해 지역 대의원과 양돈협회 지부, 전북도청 축산과의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관계자들의 도축장 방문과 설득을 통하여, 그동안 장기 체납하던 도축장에서 자조금을 납입, 85% 이상이 납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리위는 전북 고창 소재 삼덕기업이 지난해부터 거출한 양돈자조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장기 체납하여 지난달 25일 부득이하게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리위는 이와 함께 향후 거출된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도축장은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형사고발을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양돈산업 위해 언론·인터넷매체 적극 협조 당부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김건태 위원장은 지난 4월 23일 양돈자조금 사무국에서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TV광고((주)커뮤니케이션월)·온라인홍보(디노커뮤니케이션즈(주))·PR사업((주)케이피알어소시에이츠) 대행업체



▲ 김건태 위원장

3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인한 국내 양돈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언론과 인터넷 매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양돈자조금은 양돈농가가 산업발전을 위해

스스로 납부하는 소중한 자금이므로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각 홍보대행업체에서 이를 인식하고 소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구이문화가 강하다며 이 식문화를 살아먹고 썰 먹는 소비문화가 되도록 유도하여 삼겹살에 편중된 식문화를 바로잡아 과도한 삼겹살 수입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미 FTA 등 세계 개방화 속에 양돈농가는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3개 대행사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돈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고, 양돈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제주 양돈인들 지역적 특성 고려한 자조금 지원 요청

제주지역 양돈인들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조금 사업 전개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5월 11일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양돈자조금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주대의원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창림 제주양돈조합장은 이날 “제주지역 양돈인들은 육지부와 비교해 돼지생산비가 20%를 웃돌고 있다”며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다소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해도 제주만의 현실을 감안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원식, 신윤성 대의원의 경우 ‘도새기축제’와 함께 제주 향만·항공소독, 농가에 적합한 분뇨시스템 개발 및 백신효능 실험 등에 대한 자조금 지원을 건의

하기도 했다.

한편 오경욱 전 제주양돈조합장은 “우리 양돈산업의 개선점을 먼저 찾되 수입 돼지고기의 약점을 찾아 품질 및 유통과정에서의 차별화를 실현할 방안을 집중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수출재개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건태 위원장은 ‘제주 황금 도새기축제’를 벤치마킹, 보다 광역화된 소비홍보 전개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양돈자조금의 주체인 농가들이 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조금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돼지 황금부위’ 현영 출연 포스터 제작

양돈협·농협·축산기업중앙회 등 7천곳에 배포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방영하고 있는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TV광고와 연계하여 국산 돼지고기 소비홍보 포스터 3만7천부를 제작, 이를 축산기업중앙회 소속 식육판매점 3만개소와 대한양돈협회 각 지부, 농협시·군지부, 농협유통, 목우촌 등을 통해 전국 식육점 및 식당, 소비홍보 행사장 등에 배포키로 했다. 이번에 제작한 포스터에는 ‘국내산을 꼭 확인하세요’라는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들이 국내산 돼지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관리위는 “이번 포스터 배부를 통해 최종 구매단계인 식육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구매와 연결되는 소비촉진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 연구 ‘축산경제연구원’ 선정

대한양돈협회는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식당) 인증사업 추진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4월 19일 연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연구를 추진할 업체에 축산경제연구원(원장 노경상)을 최종 선정했다.

농가 납부 양돈자조금 1원당 21배 효과

꾸준한 돼지고기 소비홍보, 소비증가에 영향

2006년도에 양돈농가가 부담한 순수 양돈자조금 1원당 20.77원의 추가수익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가 한국자조금연구원에 의뢰 연구한 '2006년도 양돈자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에서 자조금에 의해 실시된 광고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수익증대 효과는 지난 2005년 효과분석 결과 나타난 20.9원과 비슷한 수치이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소득이 가격에 미치는 탄력성이 약 1.0997%로써 소득증가가 돼지고기 소비 증가를 가져오고, 결국 돼지 산지가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했다. 즉 소득의 효과가 다른 효과에 비해 매우 크고, 경제가 발전하면 외식수요 증대로 인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따라서 꾸준한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홍보가 소득증가와 함께 돼지고기 소비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자조금을 활용한 라디오 및 TV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저지방부위 소비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6년도 삼겹살이 차지하는 재고비율이 2005년도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2002년과 2003년, 2004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 부위별 재고비율 변화추이가 안심, 등심, 뒷다리살 등 저지방부위를 홍보한 자조금사업에 의한 소비촉진 효과가 작용된 것으로 풀이됐다. 즉 소비자에게 저지방부위 소비를 촉발시킴으로써 안·등심과 전·후지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들 부위에 대한 재고비율이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크게 감소된 반면, 삼겹살 재고는 증가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충남대 박종수 교수는 "수입육 증가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시장이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국내산 돼지에만 부과하는 자조금사업이 돼지고기 전체의 소비를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며 "돈육 수입업자와 그 돈육을 생산하는 수출국의 양돈농가 등은 사실상 무임편승자로서, 수입육에 대한 자조금 부과가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연구결과에 덧붙였다.

이번 연구용역비는 총 4천9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8개월로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 타당성 검토 및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전국 양돈인 대상 '생산성 향상' 세미나 개최 농협, 23일부터 8개 권역별로 한 달간 진행

농협은 '양돈산업 전망과 돼지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지난 5월 23일부터 한 달간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권역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남경우)는 지난해에 이어 농협 자체예산과 양돈자조금으로 양돈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올해는 교육내용을 더욱 보강했으며 세미나 개최지역도 6개 권역에서 8개 권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돈산업 전망과 정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소모성질병 방역대책 추진사례와 PMWS 극복사례, 사육단계 HACCP 적용, 사양관리와 사료영양, 가축분뇨 자원화방안, 농장컨설팅과 환경개선사례 등 현장사례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권역별 세미나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5월 23일 강원(횡성농업기술센터) △25일 서울.경기(농협안성교육원) △30일 충청(천안상록리조트) △6월 1일 전북(농협김제육가공공장) △8일 제주(제주양돈조합) △15일 전남(전남농기원) △20일 경북(경북농기원) △22일 경남(창녕농업기술센터).

■ 문의 : 02)2080-6574 **양돈**